

ETIAK 소식

CATV기기 국산화 및 산업육성방안 정책협의회 개최

지난 7월 30일 산업연구원에서 주최하고 본회가 후원하는 CATV기기 국산화 및 산업육성방안 정책협의회가 산업연구원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CATV사업추진관련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연세대 강창언 교수는 「CATV서비스의 단계적 확대시행에 따라 관련기기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산·학·연 공동개발에 의한 국산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은 물론 CATV사업자의 기술개발부담금 출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강교수는 특히 CATV산업은 정보통신기반을 조성하는 중추적인 매체로서 성장잠재력이 크고 국가의 사회, 문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국산화에 대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교수는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한 기기국산화를 추진하며 CATV수요처에서 국산기기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본회 박재린 이사 등 정부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 관련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 CATV기기 산업의 육성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가전산업협의회

지난 7월 9일 동협의회(회장 : (주)금성사 이현조 사장)는 본회 회의실에서 (주)금성사 등 7개사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제2단계 유통시장개방조치 이후 실태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유통조사연구소 전원재 교수의 유통시장 2단계 개방확대 이후 유통측면의 환경변화와 제품측면의 환경변화 등에 대해 설명하고 아울러 연금매장, 무자료거래의 문제점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지난 7월 9일 동협의회는 용산전자랜드, 남대문승례상가, 세운상가 등에서 관세청, 업계, 본회 등이 불법유통가전제품 관민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에서 VCR 7점, 워크맨 18점 등 총 31건을 압수, 29명을 입건 조치했다.

HA산업협의회

동협의회(회장 : 삼성전자 정보통신부문 정용문 사장)는 HA국내표준규격제정관련 협의회를 개최하고 HBS System 및 CE Bus System 내용검토 및 서비스 범위 설정, 일본 CES 규격(T-10001) 토대로 기초안검토, 미국



CE BUS 규격 접목하여 규격화작업을 추진키로 검토했다.

전자부품산업협의회

변 성기분과위원회 (위원장 : 오성전자산업 유병라 사장)의 DY표준화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1일 금성사 등 4개사가 모여 DY용 용착성 납땜가능한 폴리에스텔 이미지 7본 Litz Wire에 대한 표준화규격을 제정하여 동양전자 등 전산관련 7개사에 국산화를 요청하였다.

전 자부품산업협의회 (회장 : 오리온전기 석진철 사장)에서는 자기 Tape 국내관련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자기테이프 분과위원회를 (주)금성사 등 6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구성하였다.

스 피커분과위원회 (위원장 : 기린전자 이기방 사장)의 스피커표준화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5일 (주)북두 등 4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스피커용 Voice Coil, Upper Plate, Bottom Plate의 외형규격에 대해서 표준화 규격을 제정하였다.

CATV기기산업협의회

동 협의회는 (회장 : 동양텔레콤 배석채 사장)는 지난 7월 2일과 3일에 부문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송분과위원장에 서강전자통신 (주) 김대요 사장, 단말분과위원장에 한국전자문기대 사장 방송분과위원장에 보은전자통신 (주) 우영섭 사장을 선임하고 부문별 세부사업계획을 논의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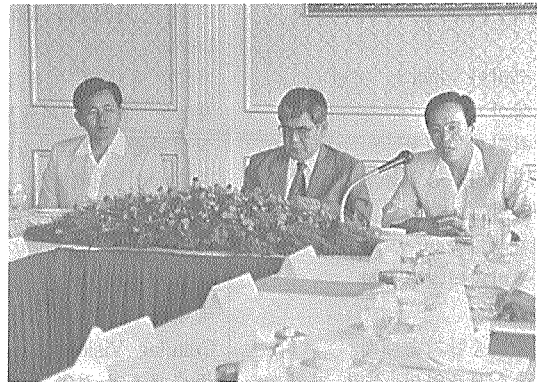
지 난 7월 14일 동협의회는 본회 회의실에서 '92 한국전자전 CATV관 개별 부스 배정

회의를 개최하고 개별 부스를 확정했다.

지 난 7월 15일 동협의회는 본회 회의실에서 회장단과 정부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갖고 CATV 정책방향 등을 논의 했다.

동 협의회는 지난 8월 3일 팔레스 호텔에서 한국통신의 이병동 CATV사업국장 초청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통신의 CATV기기 산업 육성정책의 설명을 받고 동협의회 회원사간 CATV시스템 공동개발에 관한 토의가 있었다.



컴퓨터산업협의회

동 협의회 (회장 : (주)삼보컴퓨터 김종길 사장)는 EMI 검정기관 공동설립을 추진키로 하고 체신부인가 전자파장해 검정기관을 공동출자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담자를 선임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 했다.

따라서 7월 24일 내수분과위원회는 상반기 국내 PC 시판부진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협의 하였으며 주기판분과(위)는 주기판 시장동향을 분석 내수활성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